

“국고 보조금 제대로 쓴다”

조계종, 집행·정산지침 사찰에 하달

조계종이 문화재 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화엄사 등에서 국고보조금 유용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범안 스님은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구본사 및 관립사 사찰 80여 곳에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지침(이하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감사를 통해 국고지원 사업과 관련한 불사특별회계에 대해 집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차후 적발되는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나 사찰운영을 투명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중헌중벌에 의거 엄중 문책하겠다”며 지침 하달 이유를 설명했다.

조계종은 지침에서 사찰부동산관리령 승인 조항에 전가 등의 ‘월계·신축’ 조항을 삽입했고, 각종 불사의 승인 요청 단계를 사찰-교구본

사-총무원 재무부로 명기했다. 또 불사 타당성은 총무원 문화부에서 반드시 조사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해야 하고, 보조금 집행 시 통장의 인출기록 및 사업비 지출일자, 영수증 일자 등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각종 수당 지급에는 관할사무서에 미리 문의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것 등을 각 사찰에 강조했다. 사업 완료 후 진행하는 정산 역시 보조금 사업 외의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범안 스님은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종단차원에서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서울국제도서전... ‘직지...’에 관심 집중 6월 3~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도서전에는 불서 200여종이 전시·판매된 가운데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영인본 및 복원본도 전시됐다. 청주시 직지세계화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고인쇄 체형행사와 ‘직지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박재원 기자

10·27법난 ‘진실’ 규명될까?

조계종, 국방부 과거사규명위에 ‘기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전국 3000여 사찰이 짓밟혔던 10·27법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방부 차원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 이하 진상규명위를 출범시키면서 ‘잘못된 역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27법난은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 비리척결을 이유로 전국 사찰에 군인들을 투입, 300여명의 스님들을 연행하고 56명을 구속했던 대대적 불교탄압 사건.

이후 불교계는 1986년 9월 7일 해인사 승려대회에서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어 1995년 조계종 중앙총회가 10·27법난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민중불교운동연합, 정토구현승가회 등이 주축이 돼 10·27법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8년 12월 강영훈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보상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국회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기에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는 진상규명 위 구성을 계기로 법난 전반에 대한 조사는 물론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당사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범안 스님은 “국방부가 과거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 문제도 반드시 다뤄 국가차원의 사과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6월 9일 경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교단 위상 훼손 유인물 강력대응”

조계종 호법부 간담회서

조계종 호법부가 흑색 음해 무서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를 천명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6월 3일 조계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봉축기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 사안에 대해 국내외의 모든 사찰·단체 등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종단 공식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검증되지 않은 잡지의 기사를 선정적으로 무서하는 한편, 일방적 주장만을 전제 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봉축 직후 누군가 조계종 중앙총회사무처 봉투를 도용해 <기사저널> 기사 중 불교중앙박물관 기사

만 스캐프 한 뒤 조계종 본말사 뿐 아니라 타종단 사찰, 신행단체에 발송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중앙총회에서도 “이 유인물로 인해 중앙총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며 5월 30일 조계종 호법부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호법부는 “이는 현 종단 창종 이래 모진 내외부의 난관을 극복하면서 일구어 나온 종단과 교단의 위상을 일거에 훼손하고, 80년대에도 존재했던 종단의 구태와 악습을 재연하려는 조짐 외에 다를 아니다”라며 “호법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법화종 총무원장 해륜 스님 10일 취임

법화종 17대 총무원장 해륜 스님 취임식이 6월 10일 오전 11시 통일안정사(주) 덕진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운명 스님을 비롯, 각 교구 총무원장, 원로의원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취임식에서는 법화종 창종 59주년 기념식도 함께 거행된다. **강유신 기자**

학능 스님 입적 6일 백양사에서 다비

백양사 주지를 역임한 학능 스님이 6월 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신림동 응화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64세, 법랍 50세. 열경 다비식은 6일 오전 9시 30분 백양사에서 문도장(호상 지선 스님)으로 봉행됐다. 학능 스님은 조계종 중앙총회 7~10대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02) 877-8372



동국대 일산병원이 6월29일 개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5월31일 열린 모의진료 모습. 앞쪽 오른쪽은 이석현 원장.

개통식을 개최했다. EMR 도입은 일부 대형병원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아 앞으로 대형병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MR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양식과 각종의뢰 차트, 필름 등을 전자 데이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미래 병원의 심장과 뇌에 해당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석현 원장은 “불자들이 언제라도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불교병원은 6월 29일 정식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진료에 돌입한다. **조용수 기자**

“워밍업에 최선...29일 정식 개원”

동국대일산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모의진료 시작

빨간모자를 쓴 모의환자가 외래 등록 접수대에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손님 2층 외래진료실로 가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가상환자의 진료의뢰를 접수한 원무팀 박세진씨의 친절한 안내가 이어졌다. ‘점검표’를 손에 든 모의환자 주위를 둘러싼 참관의사들과 직원들은 긴장된 눈으로 훑시나 일

어날지 모를 돌발 상황을 체크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나 차트 없이 100% 전산으로만 이뤄지는 낯선 병원업무에 익숙해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듯 보였다.

이날 일산불교병원은 재단 상임이사 영배 스님과 이석현 원장을 비롯한 의사,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의료정보시스템’가동 및 모의진료’를 개시했다. 개원을 앞두고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모의진료는 병원을 내방한 모의환자가 각종 검사와 진료를 마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이날은 먼저 정형외과 외래진료과정을 테스트했다.

이에 앞서 일산불교병원은 세계 최초로 양·한방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하고 27일 본격적인

“6월은 호국정신계승의 달”

태고종 전국사암서 추모행사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태고종 신하 2900여 전국 사암에서 추모행사가 펼쳐진다.

태고종은 6월 1개월간을 호국영령 추모 및 호국불교정신 계승 기간으로 정하고 6월 6일 현충일법회와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법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해 나라사랑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5월 25일 종단 신하 20개 총무원과 주요 사찰에 보

낸 공문을 통해 “종무원과 사찰의 일정에 따라 호국영령 추모법회와 기념행사를 봉행해줄 것”을 시달렸다. 이와 함께 태고종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분열 현상을 호국 불교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들의 마음에 나라사랑의 정신이 확고해지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고종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지역 총무원과 사찰별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할 현수막을 게시하고 워밍업 행사도 적극적으로 봉행하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0-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마운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 열반 9주기 추모대재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봉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초대법왕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을 창종하신 일봉 서경보존자의 열반 9주기 추모대재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이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6월 15일(음 5. 9)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총본산 의령 봉황산 일봉사(一鵬寺)
- 연락 및 문의처
 - 1) 서울총무원 : 전화 02)998-8161~2 전송 02)998-8384
 - 2) 의령 일봉사 : 전화 055)572-9990, 572-7777
 - 3) 문도회 : 전화 054)633-1138
 - 4) 각교구총무원 및 일봉관계단체

불기 2549(2005)년 6월 일

- 회 주 : 현 봉 해 대종사
- 증 명 : 김무찰 대종사, 조해룡 대종사
- 고 문 : 각종단 종정, 대덕 큰스님, 정금봉(장로위원장), 김명종(장로부위원장), 유청송, 염원각, 송원경, 이승은, 박수암 등 장로위원 / 홍학암(보존회위원장), 김동암(국제승가회장), 한화란(금강선원총재), 나향정, 황원광, 찰스메르시에카(미국IAEUP총재), 원의범(일봉삼장대학원장)
- 지도위원 : 이무성, 김진필, 김덕수, 송월성, 박해강, 장삼준, 최성기, 김창락, 남강수
- 봉행위원장 : 정동봉(총무원장)
- 봉행부위원장 : 최혜천(총무원부위원장), 김원각(포교위원장), 서병렬(문도회사무총장), 김인덕(법사단부이사장)

- 추진 위 원 장 : 엄지공(중앙총회위원장)
- 추진부위원장 : 이정수(중앙총회부위원장) 박도안(총회사무처장) 최혜숙(수도사회장), 권기해(일봉사신도회장), 배맹자(일봉약사회장), 정금조(일봉사 지장회장)
- 기획 위 원 장 : 최용암(호계위원장) ● 집행 위 원 장 : 김희범(감사위원장)
- 진행 위 원 장 : 정법성(선거관리위원장)
- 각교구동원위원장 : 유심(부산교구)/석담(대구교구)/유정(인천교구)/도안(대전교구)/화엄(울산교구)/법해(경기남부)/도해(경기북부)/보해(강원동부)/동청(강원서부)/정수(경남교구)/해동(경북교구)/해성(전남교구)/해선(전북교구)/영명(충남교구)/서울교구, 충무교구(총무원직할)
- 분 과 위 원 장 : 총무분과-법해(교육부장) / 재무분과-영명(재무부장) / 의전분과-정수(경남총무원장) / 섭외분과-지성(규정부장) / 봉사분과-경운(사회부장) / 홍보분과-원덕(홍보부장) / 경호분과-정철(법사단장) / 사무분과-일웅(총무국장)

- 주최: 일봉존자 열반 9주기 추모대재 봉행위원회 정 동 봉
- 주관: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이 사 장 현 경 원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일봉사 주 지 김 혜 운 (재)대한불교 일봉 문도회 중 앙 회 장 김 도 기

- 주관: 일봉존자 유지보존 협의회 공동의장 현 봉 해, 홍 학 암

- 사단법인 대한불교 호국법사단 이 사 장 정 철
- 일봉법왕 사상연구소 이 사 장 이 존 영 합장